

투데이 칼럼

말의 신비한 능력

우리말 가운데 배 아픈데 '어머니의 약손'은 특효약이다. 어머니가 '엄마 손은 약손'하며 배를 쓰다듬어 주면 웬만한 배앓이의 고통은 신기하게도 사라진다.

아픈 배를 쓰다듬어 편하게 하는 물리적 치료 효과에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이 주는 최면 효과가 어우러져 복통이 사라진 것이다. 이는 '말'이 갖는 신비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말의 힘'을 믿어 왔다. 여러 사람이 '해가사(海歌詞)'라는 노래를 불러 절세의 부인을 구했다거나, '항가'를 지어 불러 '괴성(魁星)'과 '왜병(倭兵)'을 물리쳤다는 이야기 등은 언어의 주술성을 그대로 믿는 고대인의 언어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언어관은 지금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가령, 새해인사의 덕담(德談)으로 "금년에 장가를 간다지" 혹은 "올해 아들 낳았다지" 등과 같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해서 말하는 것은 말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는 믿을 때문이다.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 또



김 양 옥
한국스피치먼절련법 대표

는 "말한 대로 된다"와 같은 관용 표현을 강조하는 것도 '말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말에는 묘한 힘이 있다. 말이 이끄는 대로 생각이 미치고 또 행동이 따라오게 되니 그 힘을 부정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남을 해치고야 말겠다'는 자기 독백은 자신의 사고를 은연중 그러한 쪽으로 몰고 가 결국은 위험한 행동까지 유발하게 한다.

"나는 정말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나 같은 놈은 이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야", "나는 정말 재수 없는 놈이야"와 같이 자기 비하의 부정적인 말은 정말로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고야 만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행동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또 그 행동의 결과도 부정적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 대신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 "나는 우리 회사에 절대로 필요한 인물이야", "나는 정말 운이 좋아" 등과 같은 긍정의 말을 해보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는 바가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말의 힘'을 믿고 늘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말한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비판하지 않고 사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최면을 건다. "이쯤이야 나에게겐 아무 것도 아니야. 노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와 같이 말이다. 과거 세계권부 해비급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도 "내 말이 50%, 내 기술이 50%로 세계 왕자가 되었다"고 회고하였고 같은 노래를 수천 수만번 부르는 가수들도 자기 노래 같이 내 인생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윌리엄 제임스'가 주장한 "내 말이 내 인생의 결과다"란 것이다.

그러면 자기 독백은 현실화되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이런 사람은 희망을 주는 기분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고 내 편이 되어 나를 지지해주므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

성공하려면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보고, 또 긍정적으로 말하라. 그대도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큰 소리로 기도하듯 말하라.

절실한 기도는 자기 최면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긍정은 행복을 낳고 부정은 불행을 낳는다는 진리를 깨달아 한번 태어난 세상살이를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사설

언론중재법 반대에 나선 언론단체

가짜뉴스나 악플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 맞서고 있다.

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의 도입 ▲고의·중과실에 대한 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매출액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삼는 것 ▲정정 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 할애 등 다수 쟁점이 있다.

국회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와 언론단체에서 공통으로 꼽은 문제 조항은 2가지다. 먼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다.

취재 과정에서 법률 위반 등 특정한 경우에 언론이 고의나 중과실을 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는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률 위반으로 중과실로 추정한다면, 과거 '삼성그룹 X파일' 보도 역시 실정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기사 삭제 효과가 있는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역시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일단 청구가 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손해 배상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사를 우선 내리자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법안을 놓고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는 결국 산회했다. 민주당은 8월 말 본회의 통과를 열두에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전조정위를 신청해 맞선다는 입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오는 17일 다시 열기로 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렴교육 강사 수요 급증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청렴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 2016년 9월부터 각종 공공기관의 청렴교육을 지원할 강사를 양성해 왔다.

현재 강사·청렴 업무 담당 공직자, 변호사, 교수 등 약 340명이 청렴교육 강사로 등록돼 활동 중이다.

또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반부패 정책·제도, 다양한 신고 사례 및 판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지속적인 강의 역량 향상을 위한 보수 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반부패·청렴 교육을 주관하는 각급 기관은 청렴연수원 누리집에서 청렴교육 강사의 명단과 전문 강의 분야 등을 확인하고 출강을 신청할 수 있다.

청렴연수원은 청렴교육 강사를 보다 적극 양성해 인재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청렴교육 강사 양성 과정 운영을 통해 반부패 법령·제도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할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올해 30명 신규 양성할 데 이어 연말까지 3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또 이번 달 31일까지 공직자와 국민들의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해 인문, 교양 강의를 담당할 청렴교육 소양 강사를 추가 모집한다.

일정한 강사 등록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가 2단계의 평가 절차를 통과하면 청렴교육 강사로 등록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활동하게 된다.

매년 약 200만 명의 공직자가 부패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미래 세대인 초·중고 학생과 일반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직자의 청렴도가 선진국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청렴을 기초로 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렴이 일상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할 전문성 있는 청렴교육 강사를 적극 양성해 나가길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대만 타이베이 코로나19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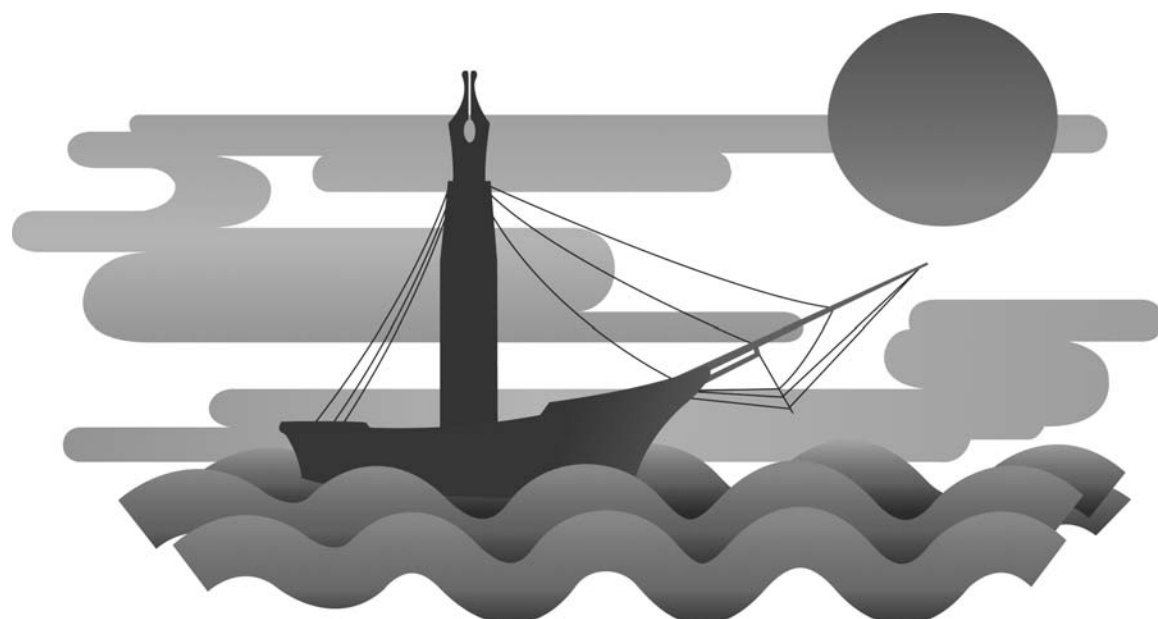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지난 13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노점을 찾아 채소 등을 구매하고서 워킹보도를 건너고 있다.

중국 칭하이 탄광 사고 현장에 투입된 구조대원들



지난 14일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하이베이장족자치구에 있는 탄광에서 구조대원들이 고립된 광부들을 찾기 위해 탄광 지도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기준 칭하이에 있는 탄광에 토사가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9명이 고립됐다고 알려졌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